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
www.kvca.or.kr

KVCA 이슈

2018년 벤처생태계 전망과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美 FRB 벤처캐피탈의 투자 효과 연구 자료

최근 10년 바이오/의료 벤처투자 현황



03

뉴스 & 리뷰 NEWS & REVIEW

04 KVCA 소식

- 2017 벤처캐피탈 송년의 밤
- 연탄 나눔 봉사 활동

05 연수원 소식

- 「투자심사 예비인력 양성과정(벤처투자론) - 고려대학교 멘토링데이」 개최
- 「2017 벤처캐피탈 Planning Manager 고급과정」 개최

06 투자 협력·M&A

- 벤처투자 로드쇼
- 벤처투자 사랑방
- 벤처기업확인
- 환경산업 투자유치 지원
- 2017 4차 M&A 자문기관 및 중소·벤처기업 워크숍 개최
- 2017 M&A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성과

11 R&D 사업

- 2017 Emerging Technologies Forum 개최
- 2017 글로벌스타벤처 육성 R&D 과제 운영결과

12 협회장 동정

- 경제사절단으로 대통령 중국 방문 동행
- IBK 창공(創工) 센터 개소식 참석
- Korea VC Awards 2017 참석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제4차 이사회 참석

13 회원사 소식

15 투자 유망기업 탐방

- 쓰리디메디비전(주)

17

이슈 ISSUE

18 2018년 벤처생태계 전망과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20 美 FRB 벤처캐피탈의 투자 효과 연구 자료

22 중국 정부 해외투자자 관련 제재 완화

24 벤처캐피탈 법률 Q&A

발행일 2018년 1월 10일(통권 115호 1월)

발행인 이용성

편집인 오세헌

발행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전화 02)2156-2100 홈페이지 www.kvca.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25

시장 동향 Market Trend

26 11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32 (VC 포커스) 최근 10년 바이오/의료 벤처투자 현황

37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뉴스 & 리뷰

NEWS & REVIEW

2017 벤처캐피탈 송년의 밤

본회는 12월 7일(수) 선릉역 인근에서 '2017 벤처캐피탈 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회원사 대표이사 및 주요 LP 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VC 업계에서 단독 주최해 열었던 첫 송년 행사여서 더욱

그 의미가 컸다. 이용성 회장의 인사 말씀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이어 김지윤 아나운서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송년의 밤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올 한해 업계를 위해 애써준 LP 기관들을 대표하여 조강래 한국벤처투자 대표, 김재준 前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 전문 MC와 함께하는 미디어 퀴즈쇼로 현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서성호 실장,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윤건수 대표의 건배사가 이어졌고, 아르헨티나 현지 탱고팀의 공연으로 참가자 모두 연말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다. 이번 송년의 밤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 뜻깊었다는 후기를 남겼다.



연탄 나눔 봉사 활동

본회는 사무국 및 회원사 임직원과 함께 매년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지역의 영세 독거노인, 장애 가정 등 빈곤층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2월 13일(수)에 우면동 접시꽃 마을에서 진행했으며, 총 2,200장의 연탄을 각 200장씩, 11가구에 나누는 활동을 펼쳤다. 2017년 겨울 들어 첫 영하 10도를 기록한 한파 속에서 참가자 총 40여 명이 한마음으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투자심사 예비인력 양성과정(벤처투자론) - 고려대학교 멘토링데이」 개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벤처투자론 수강생과 해당 대학원 재학생 중 벤처캐피탈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데이를 개최하였다.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실제로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업계 법률 이슈와

채용 관련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투자심사 예비인력 양성과정은 벤처캐피탈 인프라 확산 및 우수 인력의 벤처캐피탈 유입 촉진을 위해 일반대학원 등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 협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 일자 2017년 12월 2일(토) • 장소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창의관 116호

내 용	강 사
인사말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정진택
벤처캐피탈리스트의 하루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이사 안재광
법률 핫 이슈 - 벤처캐피탈 행위제한	법무법인 이후 대표 변호사 이종건
벤처캐피탈사 채용 포인트	케이넷투자파트너스 대표 김대영
VC-HR 시스템 안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연수원

「2017년 벤처캐피탈 Planning Manager 고급과정」 개최

벤처캐피탈 Planning Manager 과정은 기획·관리 업무 담당자를 위한 교육으로 초급과 고급 두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급과정에서는 투자사례 특강부터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률 및 세무·회계, 조합 운영 등의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실무 관련 질문

및 애로 사항 등을 자유롭게 나누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또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2017년 벤처캐피탈 세무처리 안내서를 발간하여 교육 참가자들에게 배포하였다.

• 일자 2017년 12월 7일 ~ 12월 8일 (1박 2일 합숙) • 장소 양평 대명리조트 1층 그랜드볼룸

내 용	강 사
(특강) 벤처투자 사례	더웰스인베스트먼트 대표 서학수
최근 개정(입법) VC 법률 해설 - 최근 입법 동향 - 투자계약서 관련 제도 개선(안) - 해외 벤처투자 법령	법무법인 이후 대표 변호사 이종건
벤처캐피탈 회사 경영 기획 이해 및 전략 - 투자 사후관리 및 인사관리 시스템, 성과급 등 Case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이사 한철호
벤처캐피탈 세무 및 회계처리(주요 Tax 포함)	미라파트너스 대표 박미라
조합 운용 실무(분배중심), Case Study - VC, 신기술사, 개인투자조합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부장 황유진
시장 전망 및 벤처펀드(KVF) 규약 위반 이슈 사항 등	한국벤처투자 팀장 최철훈

벤처투자 로드쇼

벤처투자 로드쇼 운영결과

본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투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벤처투자로드쇼를 운영 중이다. 특히 2017년에는 “찾아가는 투자 IR”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총 10회에 걸쳐 로드쇼를 개최하였으며, 전국의 약 101개사 중소·벤처기업이 IR에 참여하고 투자상담회에는 382개사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총 151

억 원*(11개사)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였다. 본회는 앞으로도 지방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올해는 다양한 투자유치 프로그램으로 투자 유망기업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벤처투자 로드쇼(찾아가는 투자 IR) 투자설명회(IR) 참여기업 101개사 발표 동영상과 기업정보는 Venture I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벤처투자정보센터 2017년 11월 기준 통계

** 온라인 투자매칭 플랫폼 : www.ventureir.or.kr(동영상 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 투자정보마당 > 투자IR 동영상

벤처투자 사랑방

12월 벤처투자 사랑방 개최

본회는 12월 19일 ‘12월 벤처투자 사랑방’을 개최하였다. 제이스홀딩스 등 중소·벤처기업 8개사와 에스엘인베스트먼트 등 벤처캐피탈 3개사가 참석하여 기업의 투자유치, 자금조달에 대한 1:1 대면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개최되는 ‘벤처투자 사랑방’은 2017년 중소·벤처기업 110개사에 투자유치 멘토링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벤처투자의 이해 기반을 마련하고 11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였다. VC 심사역과 기업의 정기적인 미팅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 벤처투자를 알리고 자금조달의 고충을 해소해 줌으로써 기업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본 프로그램을 점차 개선, 확대하여 VC와 기업이 Win-Win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

매월 개최되는 ‘벤처투자 사랑방’은 아래 주소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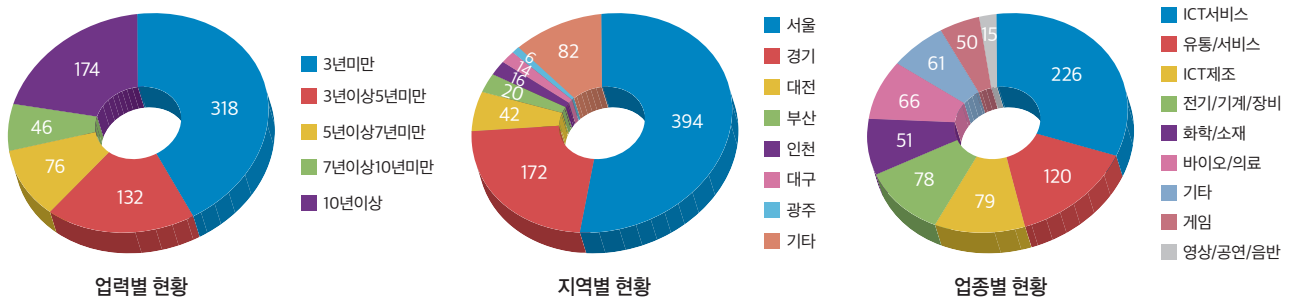
벤처투자 사랑방 참여 신청 링크 (<http://cafe.kvca.or.kr>)

벤처기업확인

I 2017년 신규 벤처기업확인 연간현황

협회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 업무(벤처투자유형)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 한해 본 회로부터 확인받은 신규벤처기업은 총 746개사이며, 746개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7년 신규 벤처기업개요 (단위: 개사)



벤처기업 투자유치 현황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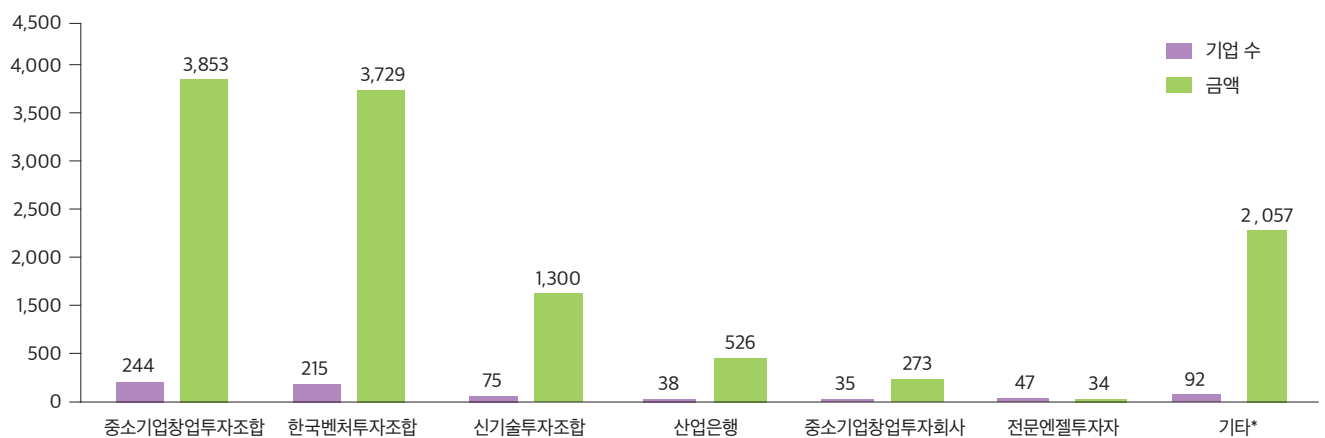
전체 투자현황

구분	금액
총 투자금	11,776
평균 투자금	16
최고 투자금	575
최저 투자금	0.5

유형별 투자현황

투자유형	기업 수	총 투자금
보통주	250개사	3,455
우선주	463개사	6,871
CB	80개사	1,297
BW	18개사	152

투자자원 및 회사별 현황 (단위: 개사, 억 원)



*기타: 신기술사, 개인투자조합, PEF, 기업은행 등

환경산업 투자유치 지원

■ 환경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107.5억 투자유치 성과

2017년 7월부터 진행된 '중소 환경기업 투자유치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총 10개 중소기업에 107.5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중소환경기업 투자유치 사업화 지원사업'은 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투자유치 아카데미와 세 차례의 투자유치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고, 환경기업 40개사를 선발해 투자유치전략 수립 및 IR 자료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11월 1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약 50여 개 투자 희망기업 및 투자기관이 참석해 '2017 환경산업 투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친환경 비철금속 표면 처리 전문기업인 (주)테크트랜스와 열교환기 제조 업체인 (주)이노센스가 총 13억 5,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협

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 외에도 투자설명회, 공개 IR, 1:1 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 열렸다.

또한, 11월 8일부터 3일간 중국 베이징에서는 '2017 유망 환경기업 해외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 로드쇼에는 친환경 펄프보드 생산업체 지앤텍 등 총 4개사가 참석하여 중국 현지 투자기관 45개사를 대상으로 공개 IR과 1:1 상담회를 진행했다. 중소기업 투자유치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유망 중소기업들을 현직 투자심사역이 심층 선별하여 총 10개사의 기업 자료를 수록한 IR 자료집을 발간했다. 발간한 자료집은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운영사인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등 협회 회원사에 배포되었다.

협회는 앞으로 중소기업 투자유치 사업에 참여한 기업 사후관리를 벤처투자 사랑방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2017 4차 M&A 자문기관 및 중소·벤처기업 워크숍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회는 M&A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자문기관 및 M&A 희망기업의 역량 향상 및 네트워킹을 위해 12월 18일(월) 오후 2시 30분 삼성동 코엑스 317호에서 「2017년도 4차 M&A 자문기관 및 중소·벤처기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M&A 자문기관뿐 아니라 M&A 거래정보망에 물건을 등록한 M&A 희망기업도 함께 참석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회에서 2017년 M&A 활성화 사업의 주요성과를 안내하고, 이어 활동 우수 M&A 자문기관에 대한 공로패 수여, M&A 자금조달 방법(홍지웅 회계사) 내, 벤처기업의 M&A 전략(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권혁

태 대표)에 대한 특강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워크숍에 참석한 자문기관과 M&A 거래정보망 등록기업이 함께하는 자유로운 만찬 및 네트워킹 자리도 마련되어 참석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회는 이번 「'17년도 4차 M&A 자문기관 및 중소·벤처기업 워크숍」을 끝으로 2017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8년도에도 M&A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M&A 거래 인프라 및 매칭 상담 확대, M&A 전문가 실무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자문기관 및 지원센터 간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M&A 활성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2017 M&A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성과

협회는 민간 주도 M&A 활성화를 위해 2016년 3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M&A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M&A 거래정보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M&A 활성화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2017년 M&A 거래정보망 성사 건수는 12월 현재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72건 정도로 예상되며, 기업진단비용 지원 건수는 17건으로 전년도 14건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A 거래정보망 DB 등록 건수도 월평균 50건 가까이 지속 증가하여 4,000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국내외 M&A 컨퍼런스, M&A 매칭데이, 인식

개선 홍보 등 M&A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M&A 자문기관은 '16년 기준 125개에서 '17년 기준 141개로 16개사가 신규 증가하였으며, 이 중 VC 등 투자기관 총 7개사가 자문기관으로 등록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2018년에도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자문기관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성과를 보면, 지난 11월 21일~24일 중국 광저우, 선전에서 개최된 글로벌 M&A·투자유치 컨퍼런스에는 중국 현지 투자기관, 대기업 및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하여 약 45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및 M&A를 끌어냈으며, 심천TV, 시나광동 등 중국 내 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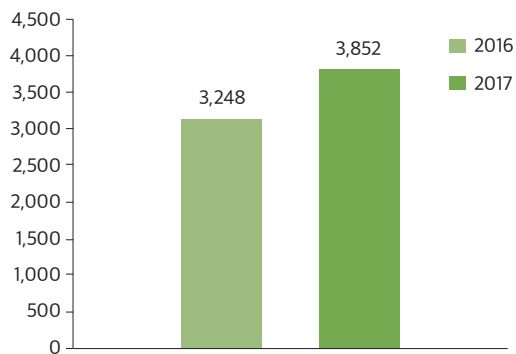
언론사가 행사장에 방문하여 촬영 및 보도자료 배포를 진행하였다. 매월 1회 개최된 M&A 매칭데이에는 총 82개사가 매수·매도기업으로 참여하여 총 48회의 매칭상담을 진행하였고, 이 중 10여 개사가 현재 M&A 성사를 위해 지속 추진 중이다. 또한, 12월 한 달간 수도권 주요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 M&A 거래정보망 광고를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리타겟팅, 주요 신문·잡지 표지 등 M&A 거래정보망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회는 2018년에도 M&A 시장 인프라 확대, 중소·벤처기업 M&A 지원 확대, M&A 거래정보망 활용도 개선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양질의 자문기관 및 인력 육성을 추진하고 지원센터·자문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우수 벤처·스타트업 M&A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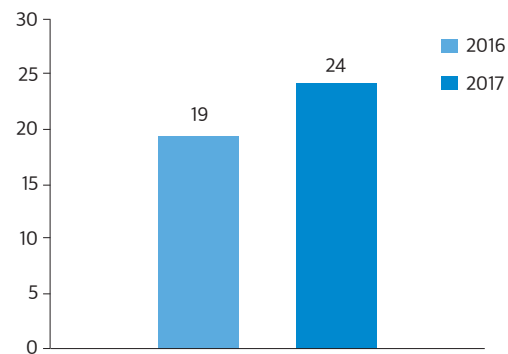
M&A 거래정보망 등록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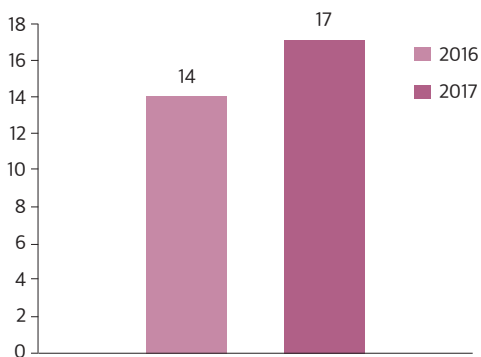
M&A 인식개선 활동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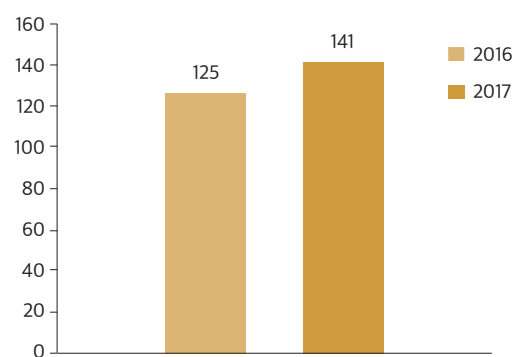
M&A 기업 진단비용 지원

(단위: 회)



등록 자문기관

(단위: 개사)



2017 Emerging Technologies Forum 개최

본회는 지난 12월 5일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에서 2017 Emerging Technologies Forum을 국내 투자심사역 등 13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포럼은 투자 유망 신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심사역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매년 연말 개최되는 기술세미나이며, 본회가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인 글로벌스타벤처 육성 R&D 과제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날 세미나는

△ Auto business in the Future(선우명호 한양대 교수) △ 네이버의 초기 기술 투자(양상환 Naver D2 Startup Factory 센터장) △ 바이오 시대 도래와 기회(노성구 파이메드바이오 대표) △ 블록체인 기술원리, 블록체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망(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 혁신기술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017 글로벌스타벤처 육성 R&D 과제 운영결과

미래 성장 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17년도에 신설된 중기부 연구개발사업인 글로벌스타벤처 육성 R&D 과제가 올 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본회는 운영기관으로 최근 3년간 최상위 VC 투자기업 및 지방청 추천기업 중 50개사를 엄선하여, R&D를 포함, 사업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였다. 그 결과 참여기업은 지원 기간 총 10개사가 국내외 벤처캐피탈 등

으로부터 총 662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을 뿐 아니라, M&A(2개사), IPO(1개사)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결실은 협회가 중심이 된 민간영역이 기업선별과 육성을 주도하고, 정부는 예산확보 및 성과평가에 각각 집중한 결과이다. 2017년에 선정된 기업은 2018년에도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며, 올해 역시 2회(3월, 5월)에 걸쳐 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문의: R&D사업팀 (02-2156-2134~5, gsv@kvca.or.kr)

경제사절단으로 대통령 중국 방문 동행

본 회 이용성 회장은 12월 12일(화)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이번 방중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총 260여 개사로 구성되었으며 역대 순방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용성 회장은 이튿날인 13일(수)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14일(목)은 코트라 주최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16일(토)은 한국무역협회 주최의 '한-중 산업협력 포럼' 등에 참석하며 다소 바쁜 방중 일정을 소화했다.

IBK 창공(創工) 센터 개소식 참석

12월 19일(화), 본 회 이용성 회장은 서울 마포 IBK 창공 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IBK 창공(創工) 센터'는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은행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입주기업에 컨설팅, 투·융자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이용성 회장을 비롯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당 의원 등이 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두려움 없는 창업환경을 위해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창업기업이 담보 없이도 금융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을 강화하고 담보자산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orea VC Awards 2017 참석

한국벤처투자에서 모태펀드 운용 우수기업 상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에 본 회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달하였다. 기존에 '스타트업 코리아(The Start-up Korea)'로 개최하던 어워드는 '코리아 VC 어워드(Korea VC Awards)'로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12월 14일(목)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모태펀드 운용성과 및 우수기업 성공사례를 공유·홍보하였으며 벤처산업 발전 유공자(투자자, 투자기업 등) 상상을 진행하고 벤처투자 생태계 구성원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였다. 참석자는 중기부 장관 등 모태펀드 출자자 및 유관기관, 모태 자펀드 운용사(VC) 및 우수기업 등 총 300여 명이였다. 이용성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에서 제정 작업 중인 통합법을 언급하며 "새로운 법의 제정은 우리 업계의 투자환경의 판도를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고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개선되어 업계의 쿼텀 점프가 가능하게 될 것을 자신"한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제4차 이사회 참석

12월 20(수)에 서초동 VR빌딩에서 개최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제4차 이사회에 본 회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사회에는 남민우 이사장, 금기현 사무총장 외 이사 및 감사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보고 안건은 2017년 제3차 이사회 결과, 당연직 이사 변경, 신규 CI 개발 완료와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의결안건은 2018년 사업계획(안), 2018년 예산(안), 정관개정(안), 제 규정 개정(안)이었다. 논의안건은 재단 발전방안 수립(안)으로 진행되었다.

네오플렉스

IPO 준비에 착수하여 최근 상장 주관사로 NH투자증권을 선정했다. 다만 네오희딩스와의 합병으로 소액주주가 5,000명에 달해 IPO 추진 결정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네오플렉스 관계자는 “주관사는 선정했지만, 아직 IPO에 대한 의사결정을 마치지 못했다”라며 “합병과정에서 소액주주나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늘어 복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은 상태”라고 밝혔다.

대성창업투자

15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투자조합 결성총회를 진행한다. 대표 펀드매니저는 모배권 팀장이 맡는다. 모 팀장은 중국 국적으로 대성창업투자의 다양한 펀드에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국적의 심사역이 대표펀드매니저를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벤처조합 출자금 마련을 위해 전환사채 발행에 나섰다. 금액은 185억 원이며 만기는 5년이다. 인수자는 삼성증권(50억 원)과 신한금융투자(15억 원), NH투자증권(40억 원), 미래에셋대우(2억 원) 신탁상품을 비롯해 키움증권(20억 원), 한양증권(20억 원), KB증권(20억 원), 히스토리 투자자문(8억 원) 등이다. 개인투자자인 김용임과 박종태도 각각 5억 원씩 투자기로 했다.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먼트

‘울산 청년창업펀드 투자자조합’의 결성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한국벤처투자의 3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지방계정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후 약 2개월 만이다. 펀드의 약정 총액은 120억 원으로 앵커 LP인 모태펀드가 70억 원, 울산시가 30억 원을 출자한다. 대표펀드매니저는 임성산 부사장이 맡는다. BK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출신인 임 부사장은 현재 라이트하우스 컴바인에서 투자를 총괄하고 있다.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최근 관계회사인 CMG 제약으로부터 3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발행한 전환사채 30억 원어치 전량을 CMG 제약이 인수하는 형태다. CMG 제약은 차병원그룹이 2012년 인수한 구강 용해 필름(ODF) 전문 제약사다. 이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펀드들의 재원 마련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한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2017년 회계연도부터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지난해 자산규모 120억 원을 넘기면서 외부감사가 의무사항이 됐다.

스틱인베스트먼트

해외 진출 플랫폼 펀드의 소진을 끝마쳤다. 펀드 결성 당시 LP들이 제시한 투자 기간을 1년이나 앞당겨 자금 집행을 완료한 것이다. 스틱 벤처본부는 조만간 해외 진출 플랫폼 펀드의 마지막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의사결정 이후 실제 자금 납입은 올 2017년 말~2018년 1월 사이에 이뤄질 전망이다. 스틱은 이번 투자심의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플랫폼 펀드의 투자를 종료할 계획이다.

유티씨인베스트먼트

국내 벤처캐피탈 중 투자조합설립 이후 가장 높은 회수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이후 16개 조합을 해산한 유티씨는 내부수익률(IRR) 15.5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산한 조합의 총 납부금액은 1,038억 원으로, 해산과 청산을 통해 배분된 금액은 1,681억 원에 달했다.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SV 글로벌바이오헬스케어펀드 2호’를 통해 종로 의료가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10억 원어치를 인수했다. 종로 의료기는 2009년 설립된 후 의료가기 도매회사다. 최근 자체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며 홈 헬스케어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지난해에는 대구 경북 첨단 의료복합단지에 연구소를 마련하고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과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엘앤에스벤처캐피탈

총 100억 원 규모의 'L&S-SDC 청년창업투자조합' 결성을 앞두고 있다. 운용사인 엘앤에스벤처캐피탈과 조합 유한책임출자자들 간 규약 조율을 마치면 20일쯤 결성총회를 진행한다. 청년창업펀드의 대표 펀드매니저는 김준모 전무가 맡는다. 주목적 대상은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거나 만 39세 이하 임직원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전체 약정총액의 60% 이상이 투자된다.

케이티비네트워크

운용 중인 'KTBN 11호 한중 시너지펀드'로 최근 중국 내 AI 스타트업 콜로보틱스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300만 달러(한화 약 32억 원)어치를 인수키로 했다. 올해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콜로보틱스는 드론 데이터 플랫폼 통합과 클라우드 기반의 산업용 데이터 분석 등에 특화된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이다.

프리미어파트너스

프리미어파트너스가 서핑 전문 의류업체 배럴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통해 40억 원 수준의 이익을 거둘 것이 예상된다. 배럴은 내년 1월~2월 중 코스닥 상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배럴은 하나금융투자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지난 8월 1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약 2개월간의 심사를 통해 지난 10월 승인받았다. 배럴은 공모가 희망 밴드를 8,000~9,500원으로 설정하고 수요예측을 준비 중이다. 조만간 최종 공모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퀄컴-컴퍼니케이 모바일 생태계 상생펀드'와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를 통해 휴네시온이 발행한 보통주 20억 원어치를 인수했다. 국내 벤처캐피탈로는 첫 번째 투자다. 휴네시온은 관련 보안 시장 내 50% 이상의 독점적 시장 지위와 독자적 원천기술력을 확보한 전문 기술기업이며 보안 시장 확대 속에 주목받고 있는 망 연계 솔루션 부문 내 1위 기업으로, 꾸준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강소기업이다.

대표이사 변경

회사명	변경 전	변경 후
이수창업투자	김대성	이희섭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윤영민	윤영민, 안상준(각자 대표)

쓰리디메디비전(주)

세계 최고 수준의 3D 의료영상시스템 & 3D 의료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로 외과 미세수술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쓰리디메디비전(주)

쓰리디메디비전(주)은 숙련된 전문 외과 의료교육을 위하여 3D 의료영상시스템을 개발/제조/판매/서비스하는 기업으로, 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녹화한 수술 장면을 SURGFLIX(3D 의료콘텐츠 플랫폼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전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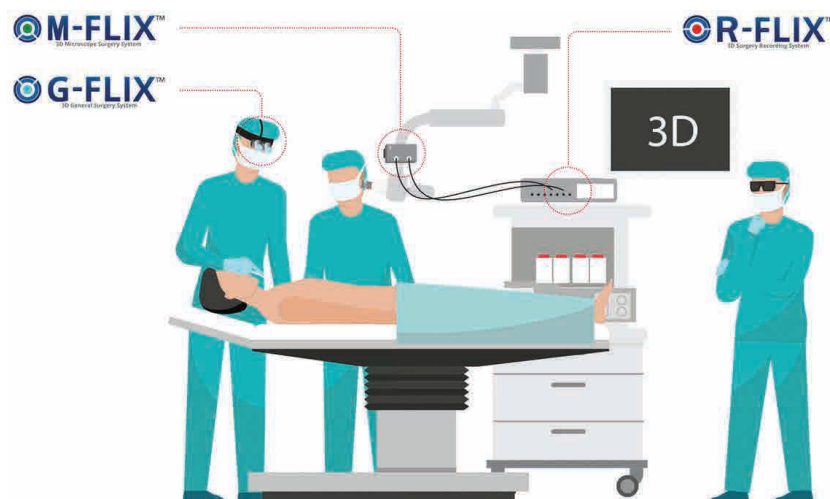
전 세계적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대한 수요 증가에도 숙련된 외과 전문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사는 기존의 1:1 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한계와 그로 인한 막대한 훈련비용과 시간, 수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D 의료영상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1:N 방식의 교육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타사대비 선명하고 사실감 높은 색감과 영상 품질은 영상 콘텐츠 생산과 편집, 호환성과 확장성 높은 촬영 장비의 개발,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수행할 수 있는 폭넓은 역량에 기반 합니다. 기존 2D 영상에서는 느낄 수 없던 몰입감과 거리감을 자사의 3D 영상에서는 느낄 수 있어 수술의 기회가 적은 전문의, 전공의의 수술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술실, 학회, 카테바 실습 등으로 수요가 높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 중이며, 국내외 바이어와 판매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학회에 참여하여 서비스 인지도를 제고

● 제품 구성도



하고, 장비 지원을 통해 유명외과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아시아 등 신흥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하여 서비스 안정화 및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 후 미국 및 유럽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현황

자사는 크게 제품 솔루션 부분과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품 솔루션 부분은 M-FLIX(외과 수술 현미경 부착 3D카메라), G-FLIX(일반 외과용 3D카메라), R-FLIX(2D&3D레코더)가 있으며, 위 3D 카메라는 수술 부위 및 주변부를 입체감 있고 정밀한 영상으로 표시함으로써, 주변 수련의들에게 집도의와 같은

● M-FLIX



● G-FLIX



● R-FLIX



입체 수술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여 수술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3D 의료영상시스템입니다.

SURGFLIX는 3D 의료영상시스템으로 녹화한 수술 영상들을 편집하고 제작하여 외과의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회사 연혁

- 2017. 06 ●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 글로벌스타벤처 육성 사업, TIPS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선정
- 2017. 05 ● 수출 첫걸음 지원 사업 선정
- 벤처기업확인(벤처투자기업)
- 2017. 03 ● 신규 수출 기업화 지원 사업 선정
- 2016. 04 ● TIPS 선정
- 2015.12 ● 국내 VC 투자유치(30억 원)
- 2014.02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식약청)
- 2013.11 ● 의료 수술용 현미경의 3차원 고화질 영상 인터페이스 시스템 특허 등록
- 2011.12 ● 국내외 다수의 대리점과 계약 체결 및 진행 중
- 2011.12 ● 쓰리디메디비전(주) 설립



이슈

I S S U E

2018년 벤처생태계 전망과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



들어가며

벤처캐피탈의 생태계는 재원조성(벤처펀드 결성), 투자(벤처투자), 회수(IPO/M&A/Trade sale)의 3개 기본 축으로 구성된다. 2017년의 평가와 2018년의 전망은 이 벤처캐피탈의 생태계가 얼마나 원활하게 회전하고 있으며, 전체 생태계의 파이가 어느정도 양적, 질적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 사이클이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적 사이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회수결과는 5년 전 투자의 결과이다. 따라서 현재 조성하는 벤처펀드는 5년 이후에야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므로 그 양측 중앙에 현재 투자된 벤처기업들이 얼마나 의미 있게 성장하고 발전하는가가 생태계 전체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벤처 생태계 평가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의 적극적 벤처육성정책에 따라 모태펀드의 8,700억 마중물 펀드참여는 벤처캐피탈 전반 재원조성에 큰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2017년 11월 기준, 2조7천억 원(113개 펀드)에 달해 2016년에 이어 3조 원을 상회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운영 중인 펀드 규모도 18조 원을 상회하여, 펀드재원 측면에서 양적으로 크게 확대된 한해로 평가된다.

필자 역시, 2017년 한 해 동안 노력을 기울여 2천억 원을 상회하는 벤처펀드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2017년 12월, 정부에서는 향후 3년간 2.7조 원을 투입하여 총 10조 원의 벤처투자 재원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동안 벤처캐피탈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미국이나 중국대비, 상대적 규모의 비교 열위를 극복할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공적 재원의 과다한 투자나 과잉 벤처재원의 조성 등을 언급하지만, 글로벌 벤처캐피탈과 대비하여 영세한 수준에 머물던 국내 벤처캐피탈의 새로운 도약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2017년 11월 기준, 2조5백억 원(1,072사)이 투자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하여 2017년 총 신규투자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2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ICT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그동안의 바이오 분야의 투자 부진(추가 R&D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심각한 바이오 벤처들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큰 상태이지만)을 상쇄시킨 것으로 보인다. 초기투자(국내에서 초기투자 기준은 창업 3년 이내로, 글로벌 기준에 비해 다소 엄격하게 적용함)가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급변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초기투자 확대 현상은 이어질 것이며, 전통산업의 인터넷화 모바일화 경향을 고려할 때 새로운 ICT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ICT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수익실적 시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국내 M&A 시장의 미성숙과 서비스 시장 규모 한계, 글로벌 서비스기업 M&A 대상으로의 국내 서비스기업 관심 저조 등, 회수 관점에서 풀어가야 할 큰 숙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도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69개의 상장(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은 50% 수준)이 이루어져 연말까지 총 100개 내외의 기업 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활발한 상장의 한해였다. 회수 창구가

상장에만 의존하는 국내 벤처캐피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장 시장은 아직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유니콘 수준인 1조 원대를 상회하는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점, 특히 AHC코리아의 3조 원대 M&A 성사는 고무적인 성과로 향후 국내 벤처기업들이 저평가를 벗어나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벤처 생태계 전망

현재의 추세선을 확장하여 2018년을 전망해 보면 벤처재원 조성은 2018년에도 2~3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 확대되고 충분한 투자재원을 확보한 벤처캐피탈들의 적극적 투자가 따를 것이 예상된다. 핵심적인 투자는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ICT 분야와 최근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O2O를 비롯해 검증된 모바일서비스 분야로 쏠린다. 더불어, 새로운 벤처기업들에 대한 발굴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을 가진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전년 수준보다 확대 경향을 보일 것이다.

회수시장에서는 연기금의 적극적 코스닥 참여로 수요기반의 확대가 예상되며, 기술특례 등을 통한 다양한 벤처기업 상장이 이루어질 것 또한 예상된다. 특히, 연기금들의 코스닥 참여 확대는 우량 벤처기업들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여, 기업가치 측면에서 재평가를 이루어낼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8년은 벤처기업들에게는 양질의 투자재원 확보, 벤처캐피탈에게는 투자과실을 거둘만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에서는, 2018년이 벤처캐피탈이 투자하기에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우량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수요 확대가 투자조건의 상승으로 나타나 투자수익 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제 다른 투자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들을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자본시장과 M&A 시장도 포함)에서 통할만 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투자 전략이 확실하게 변해야 한다. 2017년은 국내 벤처캐피탈이 이를 경험한 한 해였다. 2017년의 경험을 확대 재생산한다면 2018년에는 벤처생태계의 혁신과 함께 벤처캐피탈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해외에서 이러한 전략으로 올해 보다 적극적인 벤처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美 FRB 벤처캐피탈의 투자 효과 연구 자료

(Financing Ventures), 201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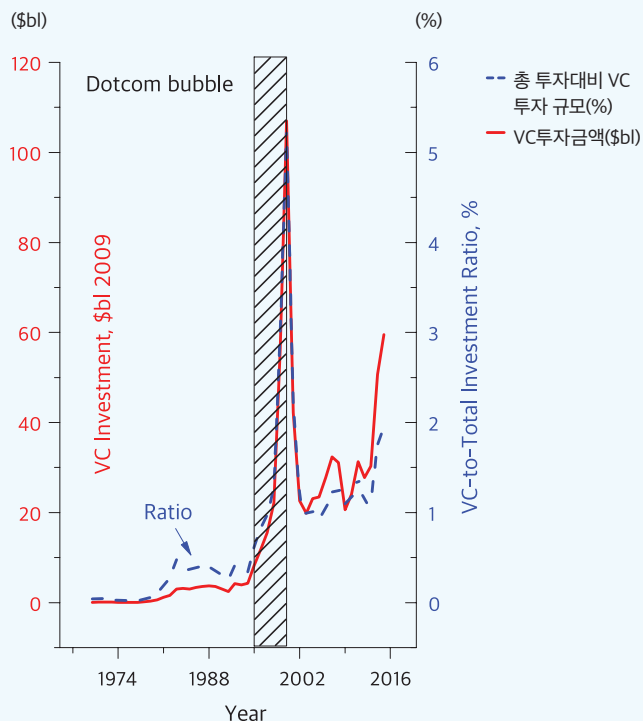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은 벤처캐피탈(VC)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VC 투자와 기업 성장 간 상관관계를 연구해 최근 발표했다.

197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VC 투자 유치 기업과 일반기업의 IPO 후 1년간 실적을 비교한 결과, VC 투자를 받은 기업이 눈에 띄는 경영 성과를 달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해 VC 투자가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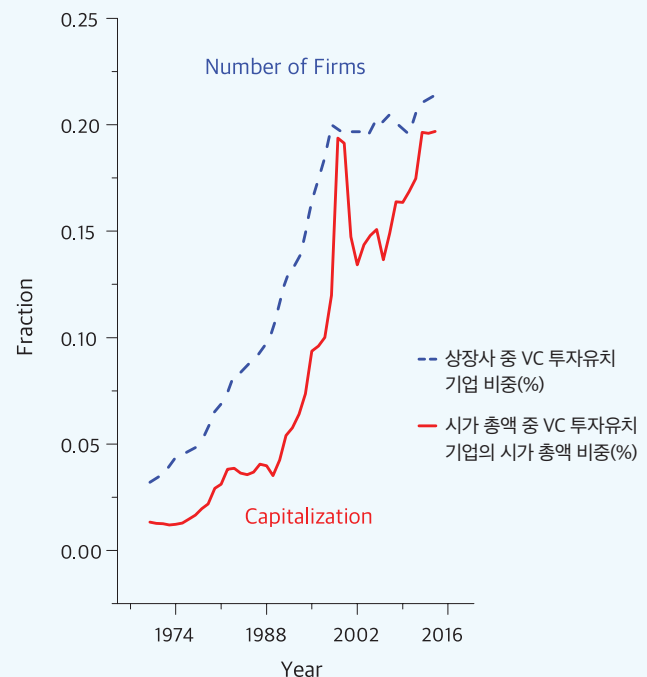
지난 50년간 미국 경제 내 VC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는 수직으로 상승했다. [그래프 1]에서 알 수 있듯이 1970년에는 다소 미미했던 VC 투자 규모가 지난 2015년에는 59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590억 달러는 미국 내 총 투자 규모 대비 2% 남짓으로 아직 적은 비중을 차지하긴 하나, VC 투자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 [그래프 2]는 상장사 가운데 VC 투자유치 기업 비중이 1970년에는 4%에 그쳤던 것에 비해 현재는 20%를 상회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시가 총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프 1] 전체 VC 투자 규모의 증가 추이(1970~2015)



[그래프 2] 자본시장 내 VC 투자유치 상장사 추이(1970~2015)



[표 1] VC 투자유치 기업(상장사)의 시가 총액 순위(1위~30위)

Top 30 VC-Backed Companies					
1	Apple Inc	11	Amgen Inc	21	Fedex Corp
2	Cisco Systems Inc	12	Yahoo Inc	22	Juniper Networks Inc
3	Microsoft Corp	13	Genentech Inc	23	Nextel Communications Inc
4	Alphabet Inc	14	Celgene Corp	24	Gap Inc
5	Facebook Inc	15	Ebay Inc	25	Viacom Inc
6	Oracle Corp	16	Compaq Computer Corp	26	Veritas Software Corp
7	Amazon.Com Inc	17	Starbucks Corp	27	Salesforce.Com Inc
8	Sun Microsystems Inc	18	Micron Technology Inc	28	Alexion Pharmaceuticals Inc
9	Gilead Sciences Inc	19	Applied Materials Inc	29	Adobe Systems Inc
10	Dell Inc	20	Regeneron Pharmaceuticals	30	Twitter Inc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VC 투자를 받은 30개의 상장사를 순위별로 나열한 위 [표 1]에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글로벌 스타 기업들이 눈에 띈다.

이렇게 VC는 ICT 및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떠오르는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고, 이 덕분에 중소벤처기업은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R&D 혁신에 투자하며 미국 경제를 이끄는 유니콘 기업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VC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7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VC 투자유치 기업과 일반기업의 IPO 후 1년간 매출액 대비 R&D 비중, 고용 성장률, 매출 증가율 및 시장 가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VC 투자유치 기업은 일반기업과 비교할 때 평균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율이 5.2%p가량 높았다. VC 투자를 받은 기업이 R&D 집약도가 높고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고용 성장률 측면에서도 VC 투자유치 기업이 4.9%p, 매출 증가율은 7.0%p 더 높았다.

이처럼 기업은 VC 투자유치 후 우수한 경영 성과를 달성했고, 이는 일반기업에 비해 37.3%나 높은 시장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VC 투자유치 기업은 IPO 당시에도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기업가치로 평가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VC 투자는 기업의 특허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 각 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VC 투자를 받은 후 1년간 특허 출원 현황을 추적한 결과, 기업들이 VC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액수가 클수록 특허를 낼 가능성이 컸다. VC 투자금액이 10% 증가했을 때 특허 실적은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VC는 기업에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 가능한 주식 등의 스톡옵션이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러므로 VC는 투자기업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재무, 회계, 인사 및 R&D에 대해 지속적인 멘토링을 하고 횡령이나 배임 등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또한 적극 수행한다. 이로써 VC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특허를 내는 등 가시적인 실적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요컨대 이번 연구를 통해 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벤처기업이 VC 투자를 받음으로써 더욱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전체 경제 성장에도 VC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 VC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제도적인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 해외투자자 관련 제재 완화



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금융서비스업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소유권 제한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랜 기간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진입하기를 바라온 해외투자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한편 이번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 마지막 날 진행한 브리핑 자리에서 발표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에 중국 시장으로의 진입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주광야오 재정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세부 사항은 아직 검토 중

이라며, 해외 투자자가 중국 내 증권사, 펀드운용사, 선물거래소 등의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최대 51%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들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소유권 한도는 49%로 제한돼 있다. 또한, 주 차관은 중국 은행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분율 한도 역시 없앨 계획이라 밝혔다. 현재는 개인 해외투자자의 경우 중국 은행의 지분을 20%까지만 가질 수 있으며, 해외투자자 집단의 경우 25%까지 소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발표에 대해 중국 내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미국 기업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경 소재 광화 경영대의 교수 폴 길리스는 “중국이 드디어 진보적인 발걸음을 땀다.”라며 “물론 관리·감독 방법, 관리기관의 구성 등이 세부적으로 결정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은 해외투자자들이 51%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영 지배권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번 중국 정부의 발표에 즉각 반색을 드러냈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북경과 상해에도 사무소를 가진 모건스탠리는 이를 “마일스톤”적인 행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올해 이미 모건스탠리 화신증권의 소유 지분을 33%에서 49%로 늘린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 따르면 향후 지분율을 더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모건스탠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해외투자자에 대한 제재 정책이 완화되면 중국의 자본시장은 더 발전되고 개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역시 이번 중국 정부 발표에 대해 앞으로 골드만삭스가 중국 자본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중국 내 한 합작투자사의 49%에 달하는 지분을 갖고 있다. 로이드 블랭크파인 골드만삭스 CEO는 “중국 정부가 그간 외국 자본의 소유권에 대해 제한을 걸어 둔 탓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투자자로서 수익의 절반도 채 못 가지고 간다면 누가 이런 곳에 기꺼이 투자하겠느냐고 덧붙였다. 기존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블랭크파인 CEO는 이번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방문에 맞춰 꾸려진 경제사절단에 유일한 투자은행 대표로서 동행한 바 있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의 윌리엄 자리트 대표는 해외투자자에 적용된 소유권 제한 규제는 오랜 기간 중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였으며, “금융 부문을 개방함으로써 금융 자원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개혁과 미래 중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제학자인 앤디 시에는 이번 발표에 다소 회의적이다. 소유권 제한 완화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발표는 상징적인 의미만 가질 뿐이다.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제재가



없어진다고 한들, 시장 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여전히 투자사 등 금융기관들이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에는 이번 발표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미국, 유럽 기업들로부터 보호주의에 대해 거센 항의와 비난을 받아 온 것 대해 잠시 한 걸음 물러나는 제스처를 보였을 뿐, 중국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지는 않으리라 판단한 것이다.

한편 중국 역시 그동안 미국의 금융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다. 최근 중경 재산 기업집단(충칭 차이신 엔터프라이즈그룹)은 미 시카고증권거래소를 약 2천만 달러에 인수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의회를 비롯한 미국 정부가 나서서 중국 자본에 시카고거래소가 매각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이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산규모 110억에 달하는 미 펀드매니지먼트 회사인 스카이브릿지 캐피탈 역시 중국 대기업인 하이난(HNA)그룹에 지분을 매각하는 작업 중에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카고거래소나 스카이브릿지 캐피탈 인수와 같은 큰 일을 추진하며 미국 금융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중국 역시 중국에 가장 큰 투자자 격인 미국에도 자국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일종의 지도(map)를 준 것으로 이번 발표의 의도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 글은 2017년 12월 21일 자료 The Washington Post(워싱턴포스트)에 게재된 기사 “After Trump visit, China to ease some foreign investment restrictions”를 번역한 것으로 본 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해임청구권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Q 소수 주주의 이사해임청구권의 내용

종류	소유 주식비율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이사해임청구권	100분의 3 (상법 제385조 제2항)	1,000분의 50(또는 25 ¹⁾) (상법 제542조의6 제3항)

1. 의의

- 관련 규정 :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이사가 통상 대주주에 의하여 선임된다는 점에서 소수 주주로 하여금 이사가 대주주에 의하여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함

2. 소 제기 요건

- 청구권자 : (i) 의결권이 없는 주주도 행사할 수 있음, (ii)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00분의 50²⁾이상의 주식을 6개월간 계속 보유한 주주(상법 제542조의6 제3항)
- 청구원인 : (i)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의 위반, (ii) 단순한 임무 해태는 해임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음, (iii) 부정행위란 의

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고의의 행위를 말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란 주의의무와 같은 일반적 의무 위반이 아닌 특정한 위법행위를 말함, (iii) 이러한 사유는 제임 중 발생할 때 해당, 사유가 해임청구 시까지 존속될 필요는 없음, (iv) 여기서 이사는 임기 중의 이사에 한함. 퇴임한 이사는 대상이 아님. [참고판례(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998. 6. 12. 선고 97가합11348 판결³⁾) ; 퇴임한 이사에 대한 이사해임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을 결하게 되어 부적법 / 참고판례(부산지방법원 2004. 4. 14. 선고 2002가합16791 판결 ; 이사 해임청구의 소가 제기된 후 당 해 이사가 사임하고 다시 주주총회에서 동일인을 이사로 선임한 경우 당초의 청구이유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적법한 소로 보아야 함)]

3. 소 절차

- 관할 :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 공동피고 : 회사와 이사의 위임관계를 해소하는 소이므로 형성의 소이고 회사와 이사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함
- 가처분 : 해임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상법 제407조 제1항 전문)

1)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름

2) 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10,000분의 25

3) [1]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주주의 이사해임청구소송은 이사가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기타 위법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하여 여전히 그 지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수주주권자에게 법원에 대하여 해임청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의 목적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의 지위를 그 잔여임기 동안 박탈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므로 해임되어야 할 자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을 갖는다. [2]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퇴임 후에도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게 되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청구의 소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소수주주권자가 총회소집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구할 수 있으며, 만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는 자가 임기 중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등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 권리의무를 행하게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어서, 별도로 그 해임청구를 따로 인정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퇴임한 이사에 대한 이사해임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을 결하게 되어 부적법하다.

A hand holding a red pen is positioned over a document that features a bar chart. The image is partially covered by a large, blue, geometric shape that cuts across the frame from the bottom left towards the top right. The background is a blurred office setting.

시장 동향

MARKET TREND

- ## 투자 자원

[illegible]

11월 신규결성조합 주요 현황

송 현

송현인베스트먼트가 에너지인프라 자산운용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되어 93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e-신산업 성장기업 펀드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관련 분야, 전력 신산업 프로젝트 관련 분야에 약정총액의 100%를 투자해야 한다. 에너지신산업 펀드는 한국전력의 출자금을 토대로 조성되었다.

에 스 제 이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가 375억 원 규모의 재기 지원 펀드를 결성했다. 재기 지원 분야는 국제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이력이 있는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였던 자가 재창업한 기업이 대상이다. 해당 펀드는 재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는 현재 모태 출자사업에 선정된 펀드를 총 4개 운영하고 있다.

엘 비

LB인베스트먼트가 335억 원 규모의 e-신산업 성장기업 펀드를 결성했다. 에너지 산업 펀드는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의 첫 출자였음에도 17곳의 운용사가 몰린 것으로 보아 VC 업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7년 11월에 8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이 중 문화 펀드 2개, 에너지신산업 펀드 3개가 포함되어 있다.
- 결성금액별로는 송현인베스트먼트의 '송현 e-신산업 펀드'가 93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의 '에스제이 뉴챌린지 펀드', LB인베스트먼트의 'e-신산업 LB펀드 1호'가 각각 375억 원, 335억 원으로 결성되었다.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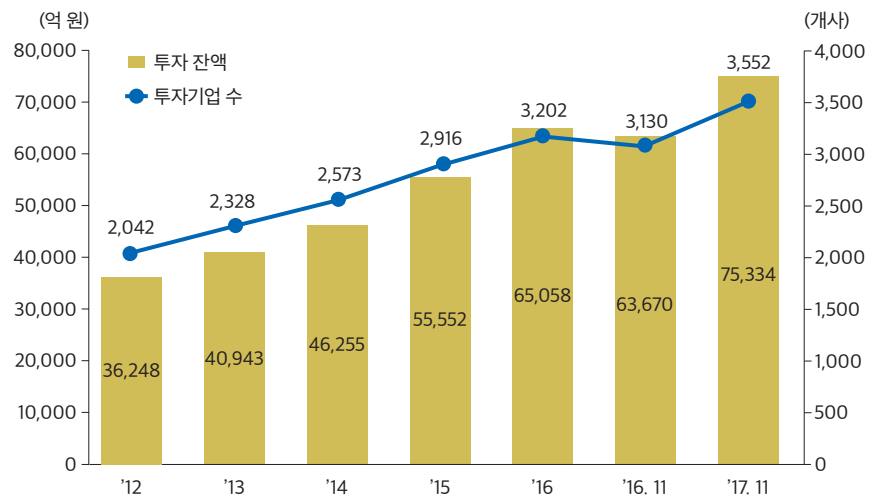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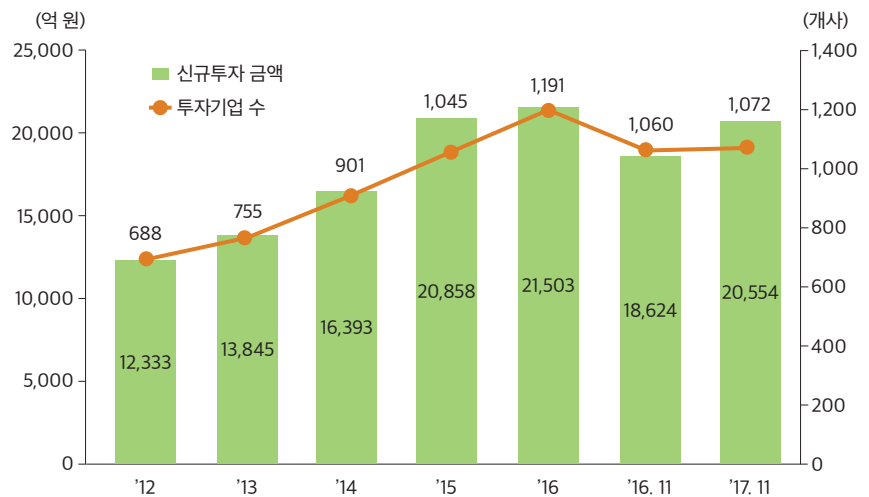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 금액	목적 구분	투자 분야
엘비인베스트먼트	창투자조합	e-신산업 LB펀드 1호	335	일반	에너지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창투자조합	KB NEW콘텐츠 투자조합	250	문화	문화 기타
티지씨케이파트너스	창투자조합	티지씨케이콘텐츠투자조합5호	20	문화	문화 기타
지비보스톤창업투자	KVF	보스톤 성장지원 5호 투자조합	115	일반	중소·벤처 일반
인라이트벤처스	KVF	인라이트 1호 청년창업펀드	162	일반	중소·벤처 일반
송현인베스트먼트	KVF	송현 e-신산업 펀드	930	일반	에너지
비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KVF	BSK 7호 E-신산업 투자조합	300	일반	에너지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KVF	에스제이 뉴챌린지 펀드	375	일반	일반 기타

11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신규투자

전체 신규투자 및 투자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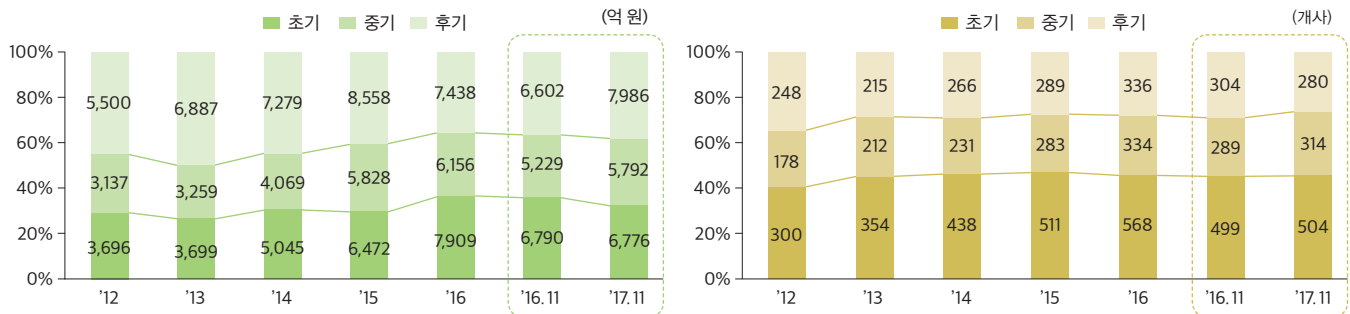
- 2017년 11월까지 신규투자는 20,5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8,624억 원)보다 10.4% 증가하였고, 투자업체 수는 1,072개사로 전년 동기(1,060개사)보다 1.1% 증가하였다.
- 11월에는 소프트닉스가 1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좋은라이프, Grab, 디케이티, 올릭스, Huajuan Live, 더네이처홀딩스, 디디에스 등의 순이었다.
- 투자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 11월까지 3,552개 업체에 7조 5,334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MARKET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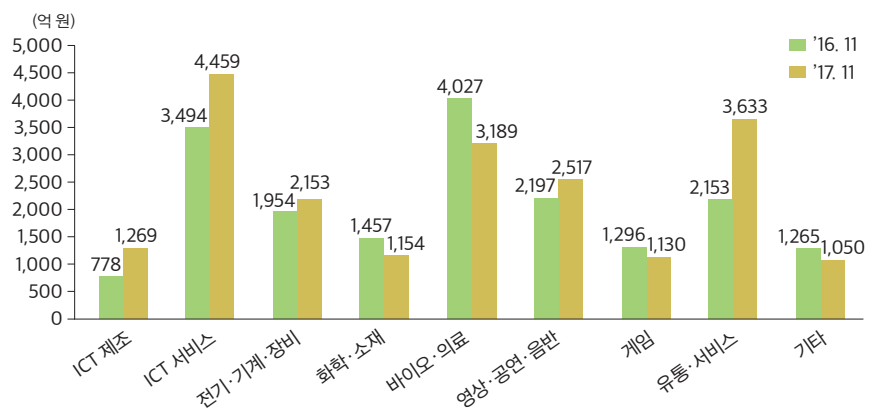
업력별 신규투자

- 2017년 11월까지 후기기업 투자 비중이 38.8%로 가장 컸으며, 초기기업 33.0%, 중기기업 28.2% 순으로 투자가 되었다.



업종별 신규투자

- 업종별로는 ICT 서비스 4,459억 원, 유통/서비스 3,633억 원, 바이오/의료 3,189억 원, 영상/공연/음반 2,517억 원 순으로 신규투자 되었으며, 유통/서비스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1,480억 원) 증가하였다. 반면 바이오/의료 분야는 838억 원으로 가장 큰 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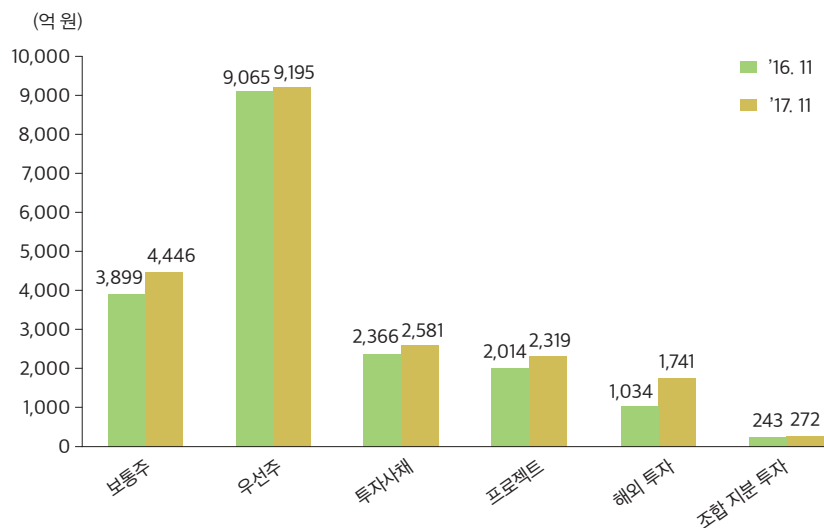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11	2017. 11
ICT 제조	2,099	2,955	1,951	1,463	959	778	1,269
ICT 서비스	918	1,553	1,913	4,019	4,062	3,494	4,459
전기·기계·장비	2,433	2,297	1,560	1,620	2,125	1,954	2,153
화학·소재	1,395	989	827	1,486	1,502	1,457	1,154
바이오·의료	1,052	1,463	2,928	3,170	4,686	4,027	3,189
영상·공연·음반	2,360	1,963	2,790	2,706	2,678	2,197	2,517
게임	1,126	940	1,762	1,683	1,427	1,296	1,130
유통·서비스	608	1,092	2,046	3,043	2,494	2,153	3,633
기타	342	593	616	1,668	1,570	1,265	1,050
합 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18,621	20,554

11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유형별·지역별 신규투자

-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9,195억 원으로 전체투자의 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통주가 4,446억 원으로 21.6%였다. 해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07억 원 증가하였다.
- 보통주 투자가 전년 동기(20.9%) 대비 0.7%p 증가한 21.6%로 확대되었고, 프로젝트 투자는 11.3%로 전년 동기(10.8%) 대비 0.5%p 증가하였다. 해외투자 비중은 8.5%로 전년 동기(5.6%) 대비 2.9%p 증가하였다.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11	2017. 11
보통주	2,403	3,425	3,297	4,226	4,437	3,899	4,446
우선주	4,887	5,038	6,103	8,786	10,398	9,065	9,195
CB·BW	1,833	3,049	3,276	3,272	2,823	2,366	2,581
프로젝트	2,459	1,944	2,681	2,471	2,427	2,014	2,319
해외투자	751	389	1,036	1,951	1,147	1,034	1,741
조합지분투자	0	0	0	152	271	243	272
합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18,621	20,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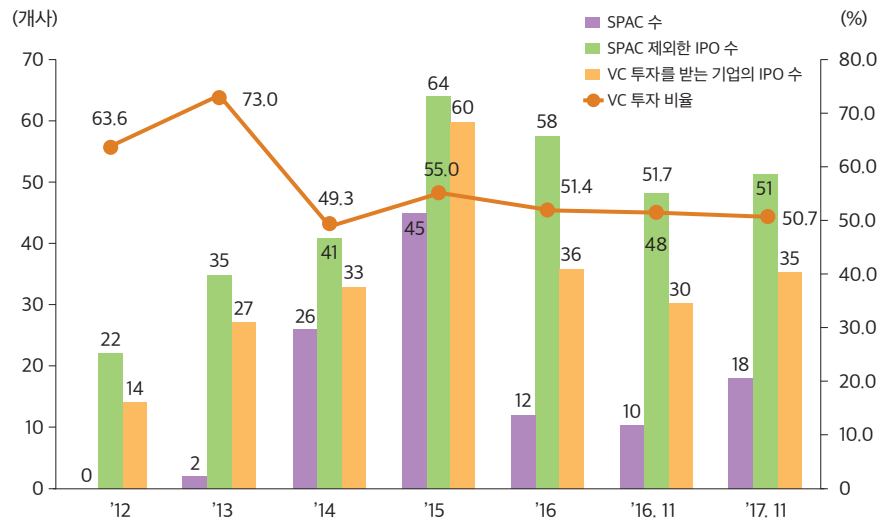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서울(53.3%)을 비롯한 수도권(75.0%) 소재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5대 광역시 8.4%, 지방 8.1% 등의 순이었다. 해외기업에는 53개사 1,741억 원(8.5%)이 투자되었다.

MARKET TREND

투자 회수

유형별 회수

- 11월까지 회수원금은 7,743억 원이며, 그중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 비중이 51.8%로 가장 높았고, IPO가 25.0%, 프로젝트가 15.0% 순이었다.
- 특히, 11월은 주식 투자의 회수 비중이 높았는데, 91건의 거래를 통해 453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주식매각을 통한 회수가 436억 원(96.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11월에는 코스닥시장에 6개사(티슈진, 비디아이, 아이비케이에스 제7호 기업인수목적, 스튜디오드래곤, 한화에이스 기업인수목적 4호,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가 상장되었으며, 이중 비디아이 1개사가 VC 투자를 받았다.



※ 자료원 : 한국거래소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11	2017. 11
IPO	1,220	1,072	1,411	2,784	2,817	2,602	1,931
M&A	72	22	163	150	329	211	261
프로젝트	1,533	1,613	1,639	1,605	1,924	1,663	1,162
장외매각 및 상환	주식	2,655	2,363	3,080	3,724	3,144	3,160
	채권	1,165	1,025	1,311	1,045	907	848
기타	188	736	217	342	476	399	381
합 계	6,833	6,831	7,821	10,219	10,315	8,926	7,743

(VC 포커스) 최근 10년 바이오/의료 벤처투자 현황

• 대상: 바이오/의료 업종의 투자실적자산 거래

※ 투자, 회수, KRX IPO 현황 및 기업정보

• 기간: 2007~2016 (10개년)

신규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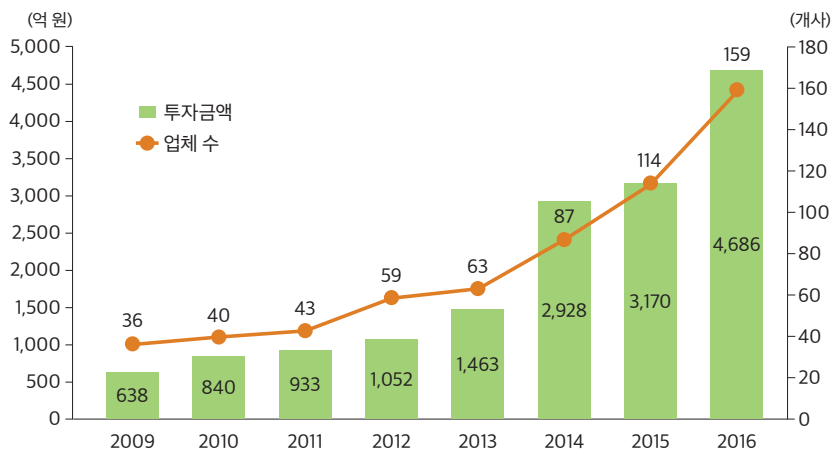
- (전체) 지난 10년간(2007~2016) 벤처캐피탈의 바이오/의료 투자는 1조 6,695억 원으로 동기간 전체 신규투자 대비 12.4%
 - 투자금액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4,686억 원으로 최고실적을 기록
 - 피 투자기업 수는 2015년 114개사로 처음 100개사를 돌파하였으며, 2016년은 159개사로 최고기록 달성

바이오/의료 신규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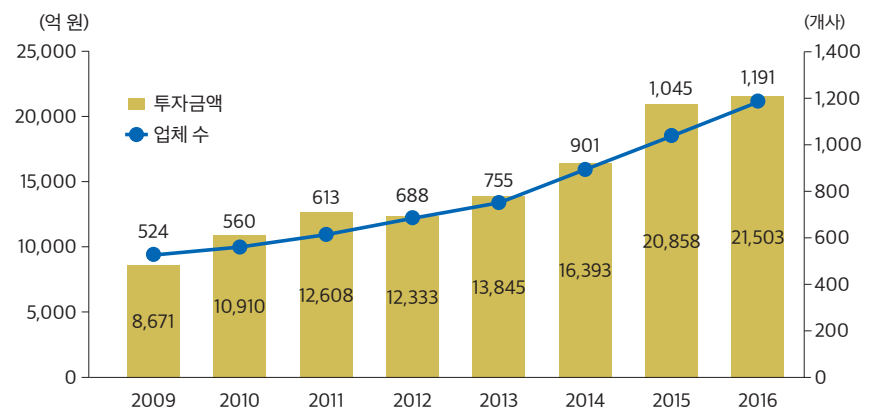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개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기업 수	38	23	36	40	43	59	63	87	114	159
투자금액	585	400	638	840	933	1,052	1,463	2,928	3,170	4,686

바이오/의료



전체



- (업력별 신규) 바이오/의료 분야는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임상 실험→제품출시(매출 발생)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 초기 단계에 투자하는 경우는 10% 내외 수준
- 그러나, 2016년에는 바이오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출현 등으로 투자 후 회수 기간 단축이 기대되며 초기투자 비중이 30% 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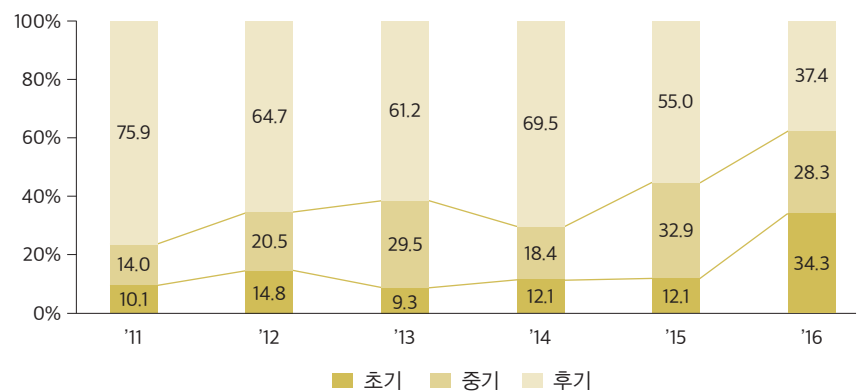
*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로 불리는 비즈니스모델로 연구(Research) 없이 개발에만 집중

바이오/의료 업력별 신규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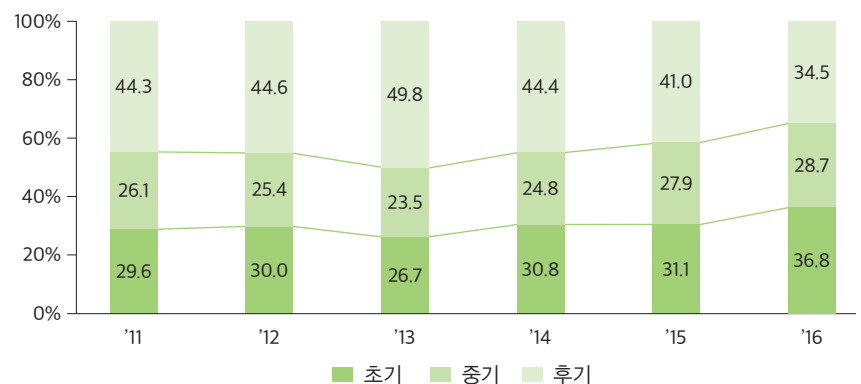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바이오 / 의료	초기	219	126	46	139	94	156	136	356	385	1,605
	중기	154	147	76	183	130	216	431	538	1,042	1,327
	후기	212	127	516	518	708	680	896	2,035	1,742	1,754
	전체	585	400	638	840	933	1,052	1,463	2,928	3,170	4,686
전체	초기	3,650	2,908	2,476	3,192	3,722	3,696	3,699	5,045	6,472	7,909
	중기	3,774	2,553	2,601	2,904	3,296	3,137	3,259	4,069	5,828	6,156
	후기	2,493	1,786	3,594	4,814	5,590	5,500	6,887	7,279	8,558	7,438
	전체	9,917	7,247	8,671	10,910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바이오/의료



전체



(VC 포커스) 최근 10년 바이오/의료 벤처투자 현황

- (유형별 신규) 2016년 바이오/의료의 82.5%는 주식(보통주 26.8%, 우선주 55.7%)으로 투자되었으며, 12.1%는 투자사채(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으로 투자
 - 전년 대비 주식 투자 비중은 10.6%p 증가하였고, 투자사채의 투자 비중은 6.1%p 감소, 해외투자 등 기타 투자 비중은 4.5%p 감소

바이오/의료 유형별 신규투자

(단위: 억 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보통주	124	21.2	83	20.7	93	14.6	214	25.4	294	31.5	236	22.5	616	42.1	934	31.9	886	27.9	1,258	26.8
우선주	308	52.7	265	66.3	265	41.5	317	37.8	374	40.1	627	59.6	501	34.2	869	29.7	1,396	44.0	2,609	55.7
CB	153	26.1	42	10.5	158	24.8	212	25.2	67	7.2	82	7.8	117	8.0	812	27.7	370	11.7	505	10.8
BW	-	-	10	2.5	122	19.1	90	10.7	178	19.1	69	6.5	182	12.5	22	0.8	205	6.5	59	1.3
프로젝트	-	-	-	-	-	-	-	-	20	2.1	-	-	-	-	-	-	-	-	-	-
해외투자 등	-	-	-	-	-	-	7	0.9	-	-	38	3.6	47	3.2	291	9.9	313	9.9	225	5.4
합 계	585	100.0	400	100.0	638	100.0	840	100.0	933	100.0	1,052	100.0	1,463	100.0	2,928	100.0	3,170	100.0	4,686	100.0

회 수

- (총괄) 2007년 이후 총 회수금액은 원금 7,255억 원, 수익 9,999억 원으로 수익률은 137.8%
 - 동기간 바이오/의료 투자를 제외한 업종의 전체 회수 수익률 51.9% 대비 2배 이상 기록

연도별 바이오/의료 회수실적

(단위: 억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회수 원금	281	73	710	473	453	549	791	639	1,667	1,619	7,255
손익	451	31	584	170	534	279	685	723	3,522	3,020	9,999
수익률	160.5	42.5	82.3	35.9	117.9	50.8	86.6	113.1	211.3	186.5	137.8

- 특히, 2016년에는 타 업종 대비 수익률이 크게 높아 186.5%를 기록

2016년 업종별 회수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원금	손익	현금유입	수익률
ICT 제조	1,513	455	1,968	30.1
ICT 서비스	763	803	1,566	105.2
전기·기계·장비	1,498	850	2,348	56.7
화학·소재	1,314	1,306	2,620	99.4
바이오·의료	1,619	3,020	4,639	186.5
영상·공연·음반	2,085	808	2,893	38.8
게 임	510	1,272	1,782	249.4
유통·서비스	576	428	1,004	74.3
기 타	555	291	846	52.4
합 계	10,433	9,233	19,666	88.5

- (투자유형별) 보통주가 227.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우선주가 104.7%, 해외투자가 22.5%를 기록
 - 특히,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보통주의 수익률이 200%가 넘으며 높은 수익률 기록하였는데 이는 IPO 회수의 투자유형 대부분이 보통주인 것의 큰 영향

바이오/의료 투자유형별 수익률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통주	55.3	9.9	103.0	31.6	187.0	103.5	140.6	170.5	286.3	227.4
우선주	883.2	403.0	2.2	60.3	8.0	15.8	46.4	40.9	79.1	104.7
C B	51.9	16.5	11.3	21.1	159.2	△61.6	32.2	23.1	28.1	20.5
B W	-	-	63.2	26.3	1.6	10.0	8.0	1,173.8	3.6	14.7
프로젝트	-	-	-	-	-	-	0.0	1.4	0.0	-
해외투자	-	-	-	-	-	54.9	48.9	-	-	22.5
전 체	160.5	42.9	82.4	35.8	118.0	50.8	86.6	113.0	211.3	186.5

- (회수유형별) M&A로 회수 시 246.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으며, IPO가 219.7%, 장외매각(주식)이 183.3%를 기록
 - 2015년 M&A 실적은 바디텍메드와 SPAC 합병을 통한 사례로 수익률 443.0%를 기록

(VC 포커스) 최근 10년 바이오/의료 벤처투자 현황

바이오/의료 회수유형별 수익률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IPO	347.2	194.4	277.6	82.9	218.8	97.4	159.1	224.5	278.2	219.7
M&A	48.1	-	15.9	49.5	-	-	-	-	443.0	246.5
장외매각 및 상환	채권	51.9	16.5	12.8	23.4	41.9	△19.9	13.1	24.2	9.6
	주식	46.5	9.9	51.6	19.4	16.9	52.0	61.3	64.0	220.7
프로젝트	-	-	-	-	-	-	0.0	1.4	0.0	-
기타	-	-	-	-	-	54.9	48.9	-	-	22.5
합계	160.5	42.9	82.4	35.8	118.0	50.8	86.6	113.0	211.3	186.5

- (IPO) 최근 10년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VC 투자기업은 316개사이며 이중 바이오 기업은 46개사로 14.6%를 차지
 - 13년 이후 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2016년 말 기준 36개 투자기업 중 7개사가 바이오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VC 투자기업 중 바이오기업 분포

(단위: 억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VC투자기업(A)	44	27	28	32	37	14	26	26	46	36	316
바이오기업(B)	4	1	6	1	4	-	6	5	12	7	46
비 중 (B/A)	9.1	3.7	21.4	3.1	10.8	-	23.1	19.2	26.1	19.4	14.6

- 2016년 말 전체 평균 IPO valuation은 1,353억 원이며 VC 투자기업의 평균 IPO valuation은 1,614억 원, 바이오 VC 투자기업의 평균 IPO valuation은 2,235억 원

IPO Valuation

(단위: 억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IPO Valuation	38,486	20,902	45,378	50,955	59,548	13,876	31,379	41,027	86,952
	평균 IPO Valuation	631	565	856	689	1,045	661	848	622	852
VC 투자 기업	IPO Valuation	28,706	15,168	21,313	28,453	43,037	8,547	24,508	26,352	75,196
	평균 IPO Valuation	652	583	761	730	1,133	611	908	799	1,253
바이오 VC 투자 기업	IPO Valuation	3,959	450	3,476	1,878	1,743	-	7,413	4,967	21,741
	평균 IPO Valuation	990	450	579	1,878	436	-	1,235	993	1,812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모태펀드

2017년 4차 정기 출자계획이 공고됐다. 총 600억 결성목표액 중 모태 출자 예정액은 300억 이내의 출자 규모로, 중진계정 조선업구조 개선 분야에 대한 운용 신청 접수를 2018년 1월 1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3차 정기 모태펀드의 운용사들이 48개사로 선정된 지 두 달 만에 절반이 넘는 VC가 사실상 펀드 매칭을 마무리 지었을 뿐 아니라 조성한 펀드 규모도 예상을 웃돌았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는 최소결성금액이 1,400억 원에서 2배가 넘는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중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 역시 최소결성금액인 785억 원을 뛰어넘는 1,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모았다. 중견 VC인 HB인베스트먼트 역시 750억 원을 모집해 최소결성금액의 25% 이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전체 모태펀드 결성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서리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VC 업계에선 펀드 소진에 관한 고민이 늘었다. 시리즈 A 나 시리즈 B 단계 투자는 보통 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투입되는데, 5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 VC라면 25곳에서 100곳의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 모델을 갖췄거나 성장 전망성이 큰 투자처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내년에도 5,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풀릴 것이 예상돼 투자처를 물색하는 데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물론, 투자처들도 과평가될 가능성에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2017년 마지막(12월) 수시 출자사업에 아래 표와 같이 이수창업투자와 엘비인베스트먼트가 총 1,334억 원 결성 규모로 선정 완료됐다.

(단위: 억 원)

구분	계정	출자 분야	결성 예정액	출자 요청액	신청회사명
12월 수시	문화	콘텐츠기업 재기 지원	134	100	이수창업투자
	중진	KVF결성목적	1,200	10	엘비인베스트먼트
계			1,334	110	-

이번 수시출자는 엘비인베스트먼트,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캐피탈원, 지비보스톤,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이수창업투자 등 총 6개 운용사가 510억 원의 출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기출자 사업 등에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지 못했던 문화계정 콘텐츠기업 재기 지원 분야는 5개사가 지원했으며, 선정된 이수창업투자에는

모태펀드가 결성액의 80%까지 출자한다. 위 두 위탁운용사들은 최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결성을 마쳐야 한다.

산업은행·성장금융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8,500억 원을 출자해 민간자금과 결합해서 최대 3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며, 한국성장금융에 3,000억 원을 출자해 민간자금과 결합, 최대 1조 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즉, 2018년 정부는 총 4조 원 규모의 혁신·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게 되며 성장 초기에는 성장금융 중심으로, 이후 단계에서는 산업은행 중심으로 역할을 배분하여 벤처 생태계 자금공급 연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M&A, LP 지분 투자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해 회수단 다양화를 도모하고 조성된 펀드가 기업공개(IPO) 위주로 회수가 이루어지는 한계도 보완한다. 중소·중견기업 M&A와 사업재편 분야에 2조 5,000억 원, LP 지분 세컨더리 분야에 5,000억 원이 지원된다. 인수합병(M&A) 펀드를 중심으로 1,500~3,000억 원 규모의 개별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모펀드(PE)·벤처캐피탈(VC) 펀드로의 구분을 폐지하고 투자 전략 등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신생운용사 4개 분야로 축소한다.

한편 성장금융은 제3차 성장사다리펀드 '사회 투자펀드(사회적기업 투자 부문)' 위탁운용사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총 6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2차 성장사다리펀드 '초기기업 Follow-on 투자펀드(2차)'의 운용사로는 퀀텀벤처스코리아-코리아오메가투자운용, 스타셋인베스트먼트,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총 3개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운용사 이 3곳은 성장사다리펀드로부터 총 380억 원을 출자받아 최소 6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2017년 사모투자 벤처펀드 부문의 위탁운용사를 6개사로 최종 선정했다. 벤처펀드 부문에서 일반 펀드 출자 대상자는 UTC인베스트먼트와 인터베스트로 각각 500억 원 정도 출자를 받을 것이 예상된다. 중·소형펀드 위탁운용사로는 K2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LB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플래티넘기술투자가 낙점됐다. 이들 운용사는 평균 각 250억 원 정도를 출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의 국내 벤처캐피탈(VC) 펀드운용사로 △DSC인베스트먼트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네오플렉스 △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스틱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코오롱인베스트먼트 △티에스인베스트먼트 총 8곳이 선정됐다. 노란우산공제가 국내 VC 펀드 투자를 진행한 것은 2007년 9월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며 총 3년간 3,000억 원 규모를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청년창업, 4차 산업혁명, 재기 지원 3개 분야로 위탁약정금액은 1,380억 원이며 운용사별로 130억~200억 원의 자금을 위탁한다.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들은 펀드를 연내에 결성해 향후 3~4년에 걸쳐 우량 기업 발굴 및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8년 상반기 중 700억 원 규모로 이 펀드 조성을 추진기로 하고 '포스코기술투자'와 '케이런벤처스'를 이 펀드의 위탁 공동운용사로 선정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6년부터 진행해 온 '연구개발특구 펀드'의 로드맵 상 마지막 완성단계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구분	1차 특구펀드	2차 특구펀드
펀드명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	연구개발특구 일자리창출투자 펀드
결성일	2006년 9월 (펀드 청산 완료)	2012년 10월 (투자 완료, 회수 중)
운용 기간	7년	8년
총결성액	800억 원	1,250억 원

구분	3차 특구펀드		
펀드명	마이크로 VC펀드 (3-1단계)	공공기술 기반펀드 (3-2단계)	특구 벤처펀드 (3-3단계)
결성일	충청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투자조합	이노폴리스 공공기술 기반펀드	(가칭)연구개발특구 제2차 일자리창출 투자펀드
운용 기간	2016년 5월 (투자 진행 중)	2017년 4월 (투자 진행 중)	2018년 6월 (예정)
총결성액	188억 원	501억 원	700~1,000억 원 (예정)

한편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기타 출자자 등이 이번 펀드에 참여하는 방안을 통해 1,000억 원까지 추가 증액될 예정이다. 주요 투자 대상과 규모는 향후 규약으로 확정되며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 지역 내

기업에 투자한다.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의 블라인드 벤처펀드 위탁운용사(GP)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KTB네트워크,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선정됐다. 출자금액은 총 500억 원으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200억 원, KTB네트워크와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각각 150억 원씩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출자받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는 모태펀드, 과학기술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산재보험기금, 노란우산공제회 등이 하반기 펀드레이징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운용사로 선정된 벤처캐피탈은 우본의 출자금을 포함해 최소 400억 원 이상 규모로 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벤처캐피탈(VC) 분야 대체투자 위탁운용사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LB인베스트먼트를 선정하고 각 150억 원을 출자기로 했다. 그리고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JKL파트너스,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로 각 400억 원의 출자계획을 포함하면 총 1,250억 원 규모를 이들 운용사 펀드에 출자하는 것이다. PEF는 운용사가 투자처를 정하면 자금을 주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집행하고, VC는 캐피탈콜과 정기적으로 자금을 주는 방식을 혼용기로 했다. 2016년 정기 출자사업을 시작한 공무원 원금 공단은 2016년에 PEF 부문에선 IMM인베스트먼트와 VIG파트너스를, VC에선 아주IB와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를 출자사로 선정한 바 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조성 및 인프라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는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정기 구독 신청 문의 및 기고 보내주실 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 TEL. ☎ (02)2156-2141 • FAX ☎ (02)2156-2110

• E-mail ☎ newsletter@kvca.or.kr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